

“마이산 삭도 추진해야”

진안읍이장협의회, 케이블카 설치 지지 나서

진안군 진안읍이장협의회(회장 신현국)는 지난 25일 마이산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삭도(이하 케이블카)설치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진안군 진안읍이장협의회는 “마이산은 세계적인 명소로 손색이 없지만 관광개발이 뒤쳐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친환경적인 케이블카를 설치해 나후 진안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장협의회는 “찬성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진안읍 전체 이장의 99%인 64명이 ‘마이산 북부와 남부 교통수단 삭도 설치 찬성 서명부’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남부와 북부를 연결해 주는 교통수단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해결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독특한 지형의 마이산을 노약자 장애인 등 산악탐방에 제약이 따르는 잠재 방문객에게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복지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노선이 주요 녹지축을 단절하지 않고 연약재판이나 풍화토 지역이 아니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마이산 케이블카는 1997년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에 반영되어 민간 투자가 실시될 때까지 마치고 공원사업 시행하기를 준비하던 중 IMF 등 극심

한 경제 불황으로 착공이 무산된 바 있다.

케이블카 계획은 시장주주장에서 암마이봉을 우회하는 봉두봉 인근으로 경유해 마이산 남부 탐사 도장골까지 총 연장 1.59km 규모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 환경단체 및 도립공원 위원회의 현지답사를 통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마이산 주봉 및 지형과 하늘이 맞닿아 드러나는 선인 마이산의 공세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원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신현국 회장은 “70% 산지인 진안군은 농산물 생산으로는 먹고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구봉산에 구름다리를 설치해 전국에서 관광객이 10배 이상 증가한 예가 있듯이 마이산에도 케이블카를 설치해 관광객을 끌어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에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반딧불 농특산물 부산 나들이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참가 ‘호응’

무주군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에 참가해 도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는 전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모두 볼 수 있는 자리로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 식품업체들이 참가해 지역의 명품을 내건 특산물들을 홍보·전시했다.

군은 무주군야생농작물과 산마늘 영농조합, 더더마을이 참가했으며, 도라지 정과와 도라지농축액 등 도라지 제품과 청국장 천마고 천마환 등의 천마제품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군 농업마케팅 강병관 담당은 “전국의 우수 농·특산물이 모인 자리에서 청정무주가 생산

한 건강 먹거리들을 선보일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군은 올 한 해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새로운 판로 개척과 직거래 장터, 주말시장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반딧불 농·특산물 100억 매출을 올린 해 반딧불 농·특산물 150억 매출을 목표로 판로 개척과 판매에 더욱 주력한다는 계획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마케팅 성장 속도를 감안해 이 부분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 영세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 취지를 제대로 살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기자

완주군, 녹색심터 ‘명상숲’ 조성

삼례동초·고산중 선정... 1억1000만원 투입

완주군이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주민들의 녹색쉼터 제공을 위해 ‘명상숲’을 조성한다.

군에 따르면, 삼례동초등학교와 고산중학교를 2016년도 명상숲 조성 대상학교로 선정하고 1억 천을 투입해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명상 숲은 학교공간을 활용해 숲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학습공간과 녹색쉼터 제공으로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조성되는 명상숲은 산책로 조성, 공간 활용 등을 통해 학교특성에 맞게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배치하고, 지역 환경에 적합한 수종으로 조성해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계획이다.

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월 해당학교와 명상숲 조성·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숲 조성 후 해당학교에서는 활용과 유지를 위해 협력한다.

한신호 산림축산과장은 “학생들의 정서안정과 녹색쉼터 제공을 위해 대상학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연차적인 명상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산림은 자산이다’

무주군, 식목일 앞두고 나무 심기 행사 가져

제기회 식목일을 앞두고 무주군은 지난 25일 무주읍 오산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자동차야영장~패러글라이딩장 주변)에서 나무심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과 기관단체, 주민 등 3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2.2ha 규모에 편백과 자작, 단풍나무 2천 8백여 그루를 심었다.

공무원들은 나무를 심은 후 읍면 담당 마을을 방문해 논밭두렁 소각 행위 근절과 담뱃불 등 실화로 인한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황 군수는 “나무를 심는 건 군민을 살리는 일이고 나무를 키우는 건 지역을 살찌우는 길이며 나무를 지키는

건 지구환경에 숲을 불어 넣는 일”이라며 “이 자리가 나무와 숲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무심기가 진행된 무주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2016)는 내도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비롯한 맛 체험 농촌관광비들과 어우러지는 명소로 기대를 모으는 곳으로 무주군은 이곳에 지난 2012년부터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왔다.

무주=전문선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무주군은 25일 오산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서 나무심기를 진행했다.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내달 운영

안전한 식재료 공급 목적

진안군은 진안고원에서 생산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산물을 관내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하는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4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원활한 생산·수급 및 공급 등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특히 민선 6기 핵심 공약사업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친환경농업과와 행정지원과로 분산되어 있던 학교급식 업무를 지난해 10월 전라선업과 로컬푸드담당으로 통합·이관해 본격적으로 학교급식 센터 설립

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진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총괄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센터로 행정에서 직영으로 운영해 학교급식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창고관리와 물품검수 및 배송 등 제반능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물류센터는 민간에 위탁하여 학교급식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창로 군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관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진안고원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지역 순환경제구조를 구축해 군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사업과
063-430-2951

특별리포트

장수군, 사과나무 분양

장수군 정보화마을이 장수 명품사과나무를 분양한다.

장수 별해남마을과 장계 품물동동정보화마을은 장수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농촌현장체험과 농촌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사과나무 분양을 실시한다.

분양금액은 홍로와 후지는 35kg보장에 각각 12만원, 후지는 45kg보장에 15만원, 하니 30kg보장에 10만원으로 분양 신청 기간은 3월 28일부터 상품 소진 시까지이며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분양된 사과나무엔 분양회원의 이름과 주소가 기록된 이름표가 부착되며 사과나무의 성장과정을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또한 사과꽃수기, 열매수기, 이릅스티커붙이기, 수확체험하기 등 시기별 농촌체험프로그램이 운영돼 도시민들에게 농촌생활의 소중한 추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장수군 정보화마을은 매년 2천주 이상의 명품 사과나무를 분양하고 있으며 분양을 통한 주민 소득이 해마다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고관호기자



장수장계주민자치위 선진지 견학

장수군 장계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송원영)는 지난 24일 선진지 견학을 통해 회원 간 친목을 다졌다.

이날 주민자치위원과 장계면 직원 등 40여명은 전남 순천시 중앙동 주민센터와 순천만 국제정원 등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특히 올해 신규로 선정된 위원들과의 화합의 장을 마련, 주민자치위원장 일체감 조성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성덕 면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을 계기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이 단합하여 장계면 발전에”고 밝혔다.

장수=고관호기자

진안군 재난예찰단 정기 간담회

진안군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지난 24일 ‘진안군 재난예찰 민간예찰단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안군 재난예찰 민간예찰단(이하 예찰단)은 지난해 11월 지역주민 21명을 위촉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발견·신고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예찰대원의 상시 예찰활동으로 발견하는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신고하고 안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정기적인 합동예찰을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최대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경찰서 천천파출소 내고을지킴이와 간담회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 천천파출소는 일자리 창출사업인 내고을지킴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간담회를 가졌다.

내고을지킴이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등·하굣길 교통사고 및 학폭예방, 아동·청소년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관할 아동·청소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연령대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기에 살아온 경험을 밑바탕으로 많은 관할구역의 치안유지를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김흥근 천천파출소장은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예방 등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기자